

“내 연기에 집중...다이빙에 더 많은 관심을”

여자 1m 스프링보드 동메달 김수지

비인기 종목 다이빙에서도, 더 관심을 얻지 못하는 여자부에서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김수지(21·울산광역시청) 선수가 주인공이다.

김수지는 지난 13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5차 시기 합계 257.20점으로 3위에 올랐다.

정신없이 시상식을 마치고 믹스트존으로 나온 김수지는 “나도 믿을 수가 없다”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수지는 1차 시기를 3위로 출발했고, 4차 시기까지 2위를 유지했다. 5차 시기에서 사라 베이컨(미국·262.00점)에게 역전을 허용했지만, 3위 자리는 지켰다.

치열한 2, 3위 경쟁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여러 차례 감탄사를 내뿜었다. 그러나 스프링보드 위의 김수지는 차분했다.

그는 “나는 원래 경기 중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다른 선수 기록, 순위보다는 내 연기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오늘도 3차 시기 때 잠깐 순위를 봤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차분하게 5차 시기를 마친 김수지는 한국 수영에 큰 선물을 안겼다. 다이빙 선수로 살아온 10년 동안 고된 훈련과 무관심의 설움을 차분하게 견디 결과다.

김수지는 동메달 획득이 확정되고,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거는 순간에는 특유의 발랄함을 드러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밝은 기운’이 넘쳤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 다이빙을 위한 목적인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김수지는 한국 수영의 역사를 바꾼 날 “세계수영선수권 한국 여자 선수의 첫 메달은 다이빙에서 나왔다. 다이빙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3m 스프링보드 결선에 진출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게 이번 대회 가장 큰 목표였다. 주 종목 경기(18일)를 앞두고 상상하지 못할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수지를 지도한 권경민 코치는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특히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1m 플랫폼이라 잘하면 메달을 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어린 나이에 올림픽 무대를 밟으며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김수지는 부푼 기대를 안고 나선 2016년 리우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권 코치는 “당시 플랫폼 종목과 스프링보드 종목을 같이 했는데, 둘 모두를 준비하는 게 벅했던 것 같다”며 “이후부터는 스프링보드에 집중하며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김수지의 가장 큰 장점을 묻자 권 코치는 “밝은 성격”이라고 답했다.

/특별취재단



13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김수지. <수영대회조직위 제공>

AG 금메달리스트...“딸 올림픽 도전했으면”

다이빙 광주 권하림 씨 권순성 씨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국가대표인 권하림(20·광주시체육회)의 아버지 권순성(54)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는 기계체조 남자 평행봉 종목에서 금메달을 땀다.

권하림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권순성 씨는 서울에 있는 수영장에 딸을 데려갔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즐겼던 권하림은 수영보다는 다이빙에 관심을 보였다.

권순성 씨는 다이빙을 지도하는 후배에게 딸을 데려갔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나 아버지에게 이어 또 한 번 태극마크를 달았다.

권순성 씨는 체조선수로서는 환갑이 넘은 나이인 32살까지 선수 생활을 했다. 선수로 활약한 시간만 23년이다. “친구들이 대회에서 심판을 볼 때도 나는 계속 선수로 다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딸은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

권하림은 “한 분야에서 ‘마스터’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운동에서 금



권하림과 아버지 권순성 씨.

한 점이 생기면 아버지께 여쭙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어 “이사하시면서 아버지가 메달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박스나 된다”며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후 권순성 씨는 1988년 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에 전념했다. 하지만 대회 직전 부상으로 쓰러진 그는 고대했던 ‘꿈의 무대’에 서지 못했다.

딸이 국가대표로 성장한 지금, 그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그는 “어느덧 하림이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도 다녀오고, 세계선수권도 치렀다. 이제 올림픽에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내가 올림픽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특별취재단

아쉬운 4위...“도쿄올림픽 티켓 획득 목표”

한국 다이빙 간판 우하람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 더 큰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우하람은 14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06.15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3위 평잔평에 8.85점 뒤지면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우하람은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어하며 한국 다이빙의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71.40점의 연기로 결승을 시작한 우하람은 4차 시기가 끝난 뒤 경기장을 뜨거워 함성으로 물들게 했다. 3차 시기에서 70.40으로 총점 206.15를 만들며 2위에 랭크됐던 그의 이름이 4차 시기가 끝난 뒤에는 순위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5차 시기에서 57.00점을 받아 3위로 내려앉은 우하람은 마지막 6차 시기를 63.00점으로 끝냈다. 전체 12명의 선수 중 10번째로 연기에 나선 우하람의 경기는 총점 406.15점, 2위로 끝났다.

관중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남은 두 명의 연기를 지켜봤지만 남은 두 명의 중국 선수가 우하람의 총점을 넘어 서면서 뒷자리를 차지했다. 우하람의 최종 순위는 4위가 됐다.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웠지만 4위는 우하람의 역대 최고 순위다.

우하람은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 7위에 오르며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기록된 4위는 한국의 남자 다이빙 기록에서도 최고 순위다. 앞서 최고 순위는 2009년 이탈리아 로마 대회

때 권경민·조관훈이 남자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에서 이룬 6위다.

자신감을 보였던 남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에서 아쉽게 10위에 머문 우하람은 개인전에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자신감을 높였다.

둔둔한 응원을 등에 업은 우하람은 15일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 17일에는 3m 스프링보드, 19일에는 10m 플랫폼 개인전에 나선다.

우하람은 “메달은 못 땀지만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 만족한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며 “조금만 더 하면 시상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5차 시기 때 역전을 끝마치는 동작에서 평소보다 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입수해 감점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솔직히 많이 아쉽다”면서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등비등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고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출전했던 대회를 생각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그의 성장은 한국 다이빙의 성장이기도 하다. 우하람은 “처음 출전한 2014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예선 통과도 못하고 점수도 다른 선수들과 100~15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지금은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 다이빙은 많이 성장했다. 난이도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다. 마지막 입수 부분만 보완한다면 세계적인 선수들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제 진짜 중요한 시한탄 남아있다. 도쿄올림픽 티켓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김현명 기자 young@



우하람이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연기를 선보인 후 코치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수영대회조직위 제공>

한국남자 수구 선수권대회 첫 도전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국 남자 다이빙의 간판선수들이 대회 메달을 향해 호흡을 맞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나흘째인 15일 한국 다이빙 선수들이 2인조 경기인 싱크로나이즈 경기에 출전한다. 한국 다이빙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에 등극한 김수지(울산시청)가 다시 한번 연기를 펼친다.

김수지는 이번에는 조은비(인천시청)와 짝을 이뤄 스프링보드에 선다. 오전 10시부터 예선이 진행되고, 오후 3시 30분에는 결승이 치러져 메달 주인공이 가려진다. 앞서 김수지가 동메달을 이룬 다이빙 1m 스프링보드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지만, 3m 싱크로 스프링보드는 올림픽 종목이다.

다이빙의 경우 개인전은 결승(상위 12위)에 진출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싱크로 종목의 경우 메달을 획득해야 한다.

앞선 남자 3m 싱크로 스프링 보드에서 아쉽게 고개를 숙였던 한국 남자 다이빙 간판 우하람은 김영남(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남자 10m 싱크로 플랫폼 경기에 나서 도쿄행 티켓에 도전한다.

우하람과 김영남은 앞선 남자 3m 싱크로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3차 시기까지 선두를 달렸지만 4차 시기 실수 이후 흔들리면서 10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오후 1시부터 예선이 진행되고, 오후 8시 45분부터 결승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 남자 수구대표팀의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도전도 시작된다. 한국은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그리스와 조별 예선 1차전을 치른다. 한국 남자수구의 첫 세계선수권대회 경기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서 남녀부 모두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앞서 14일 헝가리와 예선 1차전을 치른 여자 대표팀은 0-6로 졌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잡니다.010-6834-7400

투자 자모

1억원에 월70만원 지급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0여 식재 1억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하 인근 5200만원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은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완도를 망석리 산 지연녹지 3306㎡ 전망좋은 사철적합 6천만원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원통 등 적합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신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이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서구 쌍촌역 부근 대로변 코너 대지 467㎡ 건평 464㎡ 의원적합 25억4천
- 순천시 대대동 땅 324㎡ 건평 383㎡ 전세1억에 월150원대중 매도·교환 7억2천
- 대인동 버스도도 땅 709㎡ 건평 810㎡ 시육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도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통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1억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신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신강점 산 97400㎡ 건평 8억4천전 지하 5억8천 매도 3천
- 무안군 온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최고 투자 물건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임야, 992㎡, 공유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가주택이 많은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상가주택이 많은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상가 개발자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태도 당근이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유망분
 - 태양광 사업을 할 유망분
 - 태양광 개발자 분 유망분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사업주, 영업대리인, 인제) 모집
문의처: 담당자 02)540-7942, jh@dae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담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발전소 영업
세라코	수출관리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세무(회계)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연구개발 관련 전공자(공학계)
		R&D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유대

· 담당자: 담당자 02)540-7942, jh@daesco.kr, 근무시간: ~ 제1사무실